‘님의 침묵’ 100주년…만해 삶·정신 되짚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5만원



시집 ‘님의 침묵’과 만해 한용운
이선이 지음
소명출판
2만9000원

특별전 도록…생애·사상 재구성
장소·사람·책 키워드로 삶 조명
친필 원고와 신규 자료 한자리

저자의 세 번째 만해 연구서
형식 미학과 연구사 등 망라
‘기룸’ 자비 실천으로 재규정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1924년 가을 소설 ‘죽음’을 썼다. 마흔 중반을 넘긴 나이에 ‘죽음’의 문제를 마주한 스님은 이듬해 오세암으로 돌아와 〈십현담주해〉를 집필한 뒤 88편의 시를 탈고했다. 이 시들은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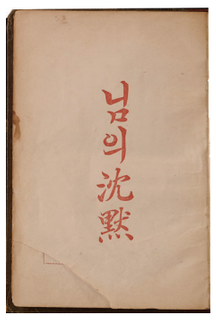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은 올해 만해 스님의 삶과 저작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신간 두 권이 출간됐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언론인으로 살았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각도로 재구성한 특별전의 도록이다. 청년기부터 애국자, 선객, 문사, 오세인, 독립지사, 지도자, 자유인에 이르는 삶을 9장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기존 연대순 유물 나열 방식의 일반적 도록과 달리 책은 그가 머물렀던 장소[處], 삶과 사상에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人], 읽고 남긴 책[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용운 스님의 삶을 좇아간다.

백담사와 오세암, 건봉사를 거쳐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 이르는 공간적 궤적과 스승·도반·동지 등 인연을 맺은 사람들,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님의 침묵〉 등 주요 저작을 통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친필 이력서와 서간, 유묵, 저작 초판본 및 시대별 〈님의 침묵〉 판본 등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일종의 ‘시각적 평전’인 셈이다. 특히 기존 연구 정리에 그치지 않고, 매천 황현 추모 유묵 ‘매천선생’과 벽초 홍명희에게 보낸 서간문,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의 여러 버전을 비교·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립한 최신 연구 성과까지 담아 학술적 가치를 더했다.

이선이 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의 〈시집 ‘님의 침묵’과 만해 한용운〉은 내용 분석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깨고, ‘님의 침묵’의 형식적 특징과 연구사, 인적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종교·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화운동가로서의 실상을 부각하며 시집의 현재적 가치를 재해석했다.





〈님의 침묵〉 초판본 속표지(사진 왼쪽)와 오세암 관음전.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시집 ‘님의 침묵’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창작 동기, 시어 ‘검’과 화쟁론적 읽기 등을 통해 시집의 의미를 조명한다. 2부에서는 한시부터 시조, 자유시로 시적 형식을 넓힌 시승 한용운 스님이 당대 인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주체인 ‘시민’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그간 간과됐던 형식적 미학에 주목해, 초간본의 갈색 앞표지에 제목과 디자인이 전혀 없고 책등에만 금박 수기로 제목을 새긴 점을 들어, 이를 ‘앞표지에 제목과 디자인이 없는 최초의 근대 창작시집’이라고 평가한다. 책등의 제목은 ‘님의 沈默’으로 적었으나 본문에서는 ‘沈默’으로 ‘묵’ 한자를 다르게 표기한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는다. 아울러 마침표를 생략하고, 쉼표·물음표·느낌표를 최소화한 점은 운율의 묘미를 살리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저자는 시집 서문인 ‘군말’의 첫 문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는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세계관이 압축돼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기룸’을 사랑과 연민을 품은 불교의 ‘자비(慈悲)’로 해석한다. 저자는 ‘기룸’을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행위로 재규정하며, 이를 불교적 사유와 식민지 현실 속에서 고통에 공감하고 회복을 지향한 한용운 스님의 시적 태도, 즉 ‘기룸의 시학’으로 명명한다.

나아가 벽초 홍명희와 천도교계 인사 등 당대 인적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몽양 여운형과의 민족독립 인식 비교, 시기별 발표 매체 분석 등을 다룬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두 책은 ‘시인’이라는 틀을 넘어 시대와 불교, 문학과 사회를 아우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2026 세종도서’ 불교 관련 18종 선정

불교 주제 교양 7종 · 학술 7종
동국대 출판문화원 등 4종도

‘2026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책 18종이 선정됐다. 불교 주제·내용 도서가 교양 7종, 학술 7종 등 총 14종이며,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도 4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지원사업은 출판 의욕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도서를 선정·보급한다. 올해는 총 6844종이 접수돼 교양 429종, 학술 345종이 8월 25일 최종 선정됐다.

교양 부문은 4650종 중 429종이 뽑혔다. 이 가운데 불교 관련 주제·내용 도서는 △거울 속의 물고기(조계종출판사, 백진순)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조계종출판사, 문일수) △붓다, 불안을 말하다(그린비출판사, 이충현)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조계종출판사, 태경 스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불광미디어, 목경찬) △시뮬라크르 AI붓다: 가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솔과학출판사, 윤용진)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불광미디어, 노승대) 등 7종이다.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는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사와 야스오미, 이홍천)와 〈신유물론과 SF 미학〉(홍은숙), 도서출판 중도의 〈숲에서 답을 얻다〉 3종이 포함됐다.

학술 부문은 2194종 중 345종이 뽑혔다. 불교 주제·내용 도서는 △종교와 과학(열린서원, 우희종 외 8인) △신중도의 세계(불광미디어, 현주 스님) △한국 선불교의 교육사적 근원(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진창영) △사운다라난다: 아름다운 난다의 이야기(도서출판 씨아이알, 아쉬바고샤, 류현정, 최지연) △원측 사상의 해석학적 연구(도서출판 씨아이알, 장규언) △불교와 에크리튀르(운주사 너울북, 시모다 마사히로, 박현진) △천장: 티베트의 죽음의례(도서출판 씨아이알, 심혁주) 등 7종이다.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로는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금나나)가 선정됐다. 선정 도서는 10월~11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배희정 기자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



이제야 부처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준영 지음
김영사
1만8000원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지나간 일은 놓지 못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까.” 불안과 후회, 상실과 집착으로 흔들리는 이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가 나왔다. 초기불교 연구자이자 명상지도자인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쓴 불교 입문서 〈이제야 부처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돈과 일, 관계와 노후, 이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고통에 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책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 고집멸도)의 흐름에 따라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괴로움을 4부에 걸쳐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삶의 무게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부처님이 설하신 ‘고통 없는 삶’이 아닌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의 통찰을 현실의 언어로 풀어낸다.

‘고집멸도’에 따른 4부 구성
다양한 고통에 전하는 지혜

1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에서는 삶의 구체적인 고통을 마주하고(고성제), 2부 ‘내 마음은 왜 나를 괴롭힐까’에서는 집착이 불안과 고통을 만듦을 설명한다(집성제). 3부 ‘놓아버리면 정말 자유로워질까’에서는 붙잡지 않을 때 열리는 평온을 다루며(멸성제), 4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부처의 길을 제시한다(도성제).

저자는 불안에 대해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며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如理作意]’ 자세를 강조한다. 반복되는 후회에 대해서는 와칼리 존자에게 자신의 썩어가는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생각 자체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탈중심화’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화와 죽음 역시 삶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이치로 받아들일 때 상실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나아가 이별은 욕망의 불길을 끄고 그 자리에 고요한 ‘자애’를 심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라며, 타인을 향했던 시선을 거둬 자신의 상처를 닦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을 만날 것이라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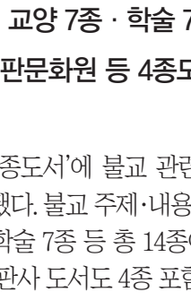
물질적 결핍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던 부처님의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도 함께 조명해 눈길을 끈다. 부처님은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질병’으로 봤다면서 정당한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올바른 노동으로 얻은 소득의 절반은 생업과 사업 투자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가족의 삶과 비상시 대비용 등으로 나눠 삶의 기반을 다지라고 조언한 부처님의 ‘사분법(四分法)’에 주목한다. 또 이를 “부처님은 정당한 소유를 통해 삶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그 안정감 위에서 더 높은 차원의 평온인 ‘열반’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정준영 교수는 프롤로그를 통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과연 시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 근본의 문제인지 물어보라”면서 “기술적 문제라면 AI가 더 명확한 답을 주겠지만, 존재에 대한 근원적 갈증이라면 2500년 전 초기 경전 속 부처님의 제안이 가장 현대적인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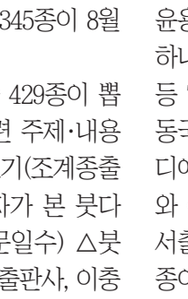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2026년 세종도서 4종 선정!!
연구는 책이 되고, 책은 교육이 되며, 교육은 미래가 됩니다.

“선불교의 전개를 ‘교육사’라는 新관점에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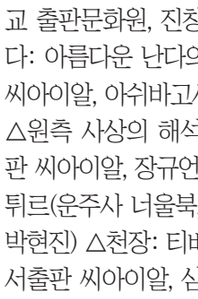
학술 부문
한국 선불교의 교육사적 근원
진창영 지음
판형 152×224 | 값 32,000원

“시각자료 활용,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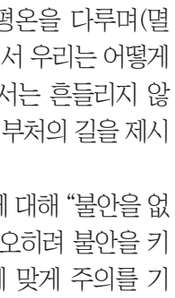
학술 부문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
금나나 지음
판형 188×257 | 값 45,000원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은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한다”



교양 부문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홍천 옮김
판형 127×188 | 값 20,000원

“미래 문명의 사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교양 부문
신유물론과 SF미학
홍은숙 지음
판형 152×224 | 값 21,000원

2024년 세종도서 5종 선정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번진사
정병준 지음



기신론별기
김천학 외 지음



산사에서 찾은 보물이야기
이분희 지음



뮤직코노믹스
지인엽 지음



자유의 도시 올드 상하이
김양수 지음

2025년 세종도서 2종 선정



선으로 읽는 도덕경
안호영 외 지음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지연 지음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